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76)

以人爲本

이 인 위 본

사람이 근본이다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답답하다! 대한민국 70년 동안 어렵고 혼란스러운 날도 많았는데, 지금도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피 터지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 때문에 혼란함이 엄습한다. 야당 대표는 법대로 대통령을 탄핵하였고, 대통령은 사임하는 대신에 그러면 법에 물어보자고 헌재에 가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으니, 두 사람이 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가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해 달라고 한 셈이다.

양쪽이 다 '법대로'해 보자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디에서도 국가의 안정과 평화,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생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적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모른다. 그러나 실령 누가 이기더라도 이렇게 민생을 내팽개치고서 승리하였다고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동물이라면 힘으로 상대를 이기면 그것으로 그만이지만, 역사에서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 보아 한 번의 승리가 오히려 욕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지도자의 윤리와 도덕은 무엇인가? 실학 자기 개인은 지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다. 그러한 지도자라면 한 번 지거나 실패하여도 국민의 머릿속에는 국민의 충신(忠臣)으로 영원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이기더라도 역사에서 국민의 간신(姦臣)이나 흑리(酷吏)로 분류된다면 결코 그 승리가 영광이 아니라 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니 불현듯 후한(後漢) 말(末) 많은 영웅호걸이 나와서 황제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삼국지에 그려진 영웅들 가운데 유비(劉備)가 조조(曹操)에게 쫓기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버리지 못한 장면을 생각한다.

유비는 능력이 있지만 출신 배경이 없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의탁할 곳을 찾아다녀야 했던 사람이다. 조조를 피하여 형주(荊州) 자사 유표(劉表)에게서 조그만 도읍 하나를 얻어 더부살이하던 때의 이야기다. 그때 유표가 죽고 유표의 아들 유클(劉琮)은 배다른 형 유키(劉琦)를 제치고 아버지가 남긴 형주(荊州)를 물려받았다. 하지만 형과의 싸움으로 쪼개진 힘을 가지고는 영웅들과의 경쟁 속에서 형주를 지킬 자신이 없었는지 형주를 가지고 조조에게 귀부하였다.

이 때문에 유비는 형주를 떠나야 했다. 그의 참모 가운데는 새로 형주를 맡은 유클은 세력이 약하니 그를 공격하여 형주를 차지하고 조조와 대결하자고 권고하는 사람이 있었다. 잊속만 치자면 이 말이 맞는다. 그러나 유비는

자기가 어려울 때 기거할 자리를 제공한 유클의 아버지 유표의 은덕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먹고 먹히는 싸움의 한복판에서 도 이익을 위해 배반하는 것은 안 된다는 윤리를 가지고 있었다. 손해를 보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킨 것이다.

유비는 조조가 남으로 내려오면 제일 먼저 점령할 곳이 강릉(江陵)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관우에게 수백 척의 배를 가지고 빨리 강릉에 가서 이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형주를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은덕을 베푼 유표의 묘소에 가서 작별을 고하였다. 인간적인 예의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유비의 인간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유비가 양양(襄陽)을 지나 당양(當陽)에 도착하였을 즈음에는 형주를 이어받은 유클에게 실망한 유클의 좌우에 있던 사람과 형주의 백성들 가운데, 형주를 떠나는 유비에게 귀부한 사람이 10만 명이 되었다. 그러나 유비는 10만 명을 얻었지만, 이것은 군사가 아니라 일반 백성이 뒤섞인 군중일 뿐이었다. 이들은 짐수레까지 끌고 따르니 움직이는 속도는 하루에 겨우 10리였다.

한편 조조는 유비가 강릉을 먼저 장악할까 걱정하여 기병 5천 명을 선발하여 하루에 300리의 속도로 유비를 추격하게 하였다. 하루에 10리를 움직이는 유비의 군중은 하루에 300리를 움직이는 조조의 정예기병과 싸우게 된 셈이다. 이러한 상태를 본 유비의 참모는 유비에게 권고하였다. "의당 속히 가서 강릉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지금 비록 많은 무리를 가지고 있지만 갑옷 입은 사람은 적으니 조조의 군사가 이르면 어떻게 이를 막겠습니까?" 따르는 10만의 무리를 버리고 먼저 강릉으로 가라는 권고였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말은 백번 맞는다. 그러나 유비의 대답은 달랐다. "무릇 큰일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근본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나에게 귀부(歸附)하였는데, 내가 어찌 차마 이들을 버리고 떠나겠는가?"

유비는 불리한 것을 알았지만 끝내 자기를 따르는 군중을 버리지 못하였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 장비(張飛)가 장판교에서 조조 군과 맞싸웠고, 유비의 군사는 대패하였다. 절 것을 알고 진 셈이다. 유비의 손해는 막대하였다. 그의 아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 정도였으니 말이다. 만약에 유비가 자기를 먼저 생

각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먼저 강릉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기를 조금 지나서 남으로 내려오려는 조조를 유비는 손권(孫權)과 힘을 합하여 막아냈다. 그것이 유명한 적벽(赤壁)대전이다. 그뿐만 아니었다. 조조를 형주(荊州)에서 막은 뒤에 유비는 형주를 손권과 둘이서 나누어 차지하였다. 형주에서 더부살이하던 유비가 원래 형주의 주인인 유표를 배반하지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형주의 반을 차지한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유비는 촉(蜀)으로 들어가서 후에 촉한(蜀漢)을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역사가인 습착치(習鑿齒)는 유비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평론하였다. "유원덕(劉玄德, 유비)은 비록 좌절하고 험난하였으나 신의(信義)는 더욱 밝았으니, 형세가 긴급하고 일이 위태로워도 말함에 도(道)를 잃지 않았다. 유경승(劉景升, 유표)의 옛 은혜를 추념하니 삼군(三軍)을 인정(人情)으로 감동시켰으며 대의(大義)를 따르는 선비를 사랑하였으니 기꺼이 함께 실패하려 하였다. 그러나 끝내는 대업을 이룬 것은 역시 마땅하지 않겠는가!" 유비가 촉한을 세우고 황제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희생시키더라도 백성을 생각하는 그의 윤리와 도덕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두 사람이 똑같이 '법대로' 하니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하면서 헌법재판관에 판판을 달라고 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별안간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으니 이미 스스로 지도자의 자리를 버린 것이다. 대정치가로서의 금도(襟度)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도자로 믿은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두 사람이 비록 여야의 영수이기는 하지만, 자질구레한 법조문을 따지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나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도자가 되기로 했다면 시작은 법으로 하였고 하여도 인간학, 인문학적 사고를 보충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군대에서 General이 된다는 것은 각자 출발할 때의 병과(兵科)를 넘어서서 자기 개인이 갖는 병과가 없어지는 것처럼, 진정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이레라도 인문학적 사고로 General이 되어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행동'을 한다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이기든 지든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는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고사성어

권태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Plan A.B.C를 만들어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칠교, 배울학, 서로상, 길장.

뜻: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함
유래: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의 학기편(學記篇)에 나오는 말로 "옥(玉)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 수 없다. 배워보아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쳐 본 다음에야 그 어려움을 알게 된다. 배움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를 돌아보아 볼 수 있게 되고 어려움을 알고 나서야 스스로 힘쓰게 된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다."

구사일생(九死一生)

아홉구, 죽을사, 한일, 날생.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
유래: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의 명신이자 문인이던 굴원이었다고 한다. 수구사(九死) 유미기(猶未其悔) 아홉 번 죽을지라도 후회할 일은 하지 않으리라. 굴원의 명시 이소(離騷)의 한 구절에서 나온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훗날 당나라의 유방은 굴원의 이 표현에 대해 주석을 달기를 "아홉은 수의 끝이다."

교언영색(巧言令色)

교묘할교, 말씀언, 하여금령, 빛색.

뜻: 교묘한 말과 좋은 표정으로 꾸민 얼굴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함심을 사기 위해 교묘히 꾸며낸 아첨하는 얼굴빛을 의미함이다.

유래: 논어의 학이편(學而篇)에서 공자는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이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자왈子曰, 교언영색巧言令色 선의인鮮矣仁

공자는 자로편(子路篇)에서 어진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성격이 굳세고 의연하며 소박하고 어눌한 사람이 바로 어진 사람에 가깝다."

교토삼굴(狡兔三窟)

교활할교, 토끼토, 셋삼, 굴굴.

뜻: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숨을 굴을 파 놓는다. 지혜롭게 준비하여 어려운 일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요즈음

2024년 제7차 상임위원회 개최

제7차 상임위원회가 12월 20일 11시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수석부회장으로서 대종회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권영하 수석부회장과 권철환 수석부회장, 권중근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정택 행주서원 원장, 권수용 부회장, 권태호 지역총친회장협의회 회장, 권대복 상임위원, 권정걸 전 안양총친회장, 권중승 영주총친회장, 권광택 전 청주총친회장, 권오상 전 사무총장,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등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권행안 편집국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대종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권영하 수석부회장은 인사 말씀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모처럼 만났으니 오늘도 좋은 토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행안 편집국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대종회 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권영하 회장이 허리 협착증(요통, 요추부) 및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으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12월 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휴직했다고 보고하고, 이에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 중 연령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관 제9조 2항에 따라 수석부회장 중 최고 연령자인 권영하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또한 권오상 사무총장이 지난 11월 25일 자로 퇴직함에 따라 11월 26일부터 권행안 편집국장이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맡았으며, 권오상 전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에 선임되었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능동장학회 업무 보고로 권영창 대종회장을 이사장으로 교육청에서 승진했으며, 능동장학회도 신임 이사장으로 등기소에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에 국가표준영정 심의가 통과한 이래 약 2년여 만에 총장공 권을 도원수 국가표준영정이



2024년 11월 27자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다고 보고했다.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번호	선현명	규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102호	권을	가로 120cm 세로 200cm	권오창	고양시	행주산성 총정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여 년 전에 도난당한 권을 도원수 영정의 영인본을 봉안하고 있는 금산 이치대첩지 총정사, 권을부대(60사단), 행주서원 등에 국가표준영정의 영인본으로 교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시조 영정 제작 규격과 자문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하자 권철환 수석부회장은 시조 태사공 영정은 국가표준영정 규격대로 제작해야 하며, 종보에 광고를 내서 전국의 많은 축친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자문회의는 내년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정관개정 소위원회는 내년 초에 개정안 축조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행안 편집국장

謹賀新年

존경하옵는 안동권씨 100만 축친 여러분, 15개 파종회장협의회 회장단 회장님, 전국 60여개 지역총친회장협의회 회장단 회장님, 전국 34개 전국청장년회장협의회 회장단 회장님,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축친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 회장 권태형
사무국장 권우경

지역	회장	사무국장	지역	회장	사무국장	지역	회장	사무국장	지역	회장	사무국장
강릉	권혁렬	권영상	봉화	권영만	권오서	예천	권오완	권의영	청주	권광택	권혁만
경산	권경수	권영승	부산	권부현	권덕립	울산	권현기	권오설	태안	권수용	권오선
경주	권기혁	권오출	산청	권병국	권희성	원주	권순구	권용덕	합천	권영식	권영인
광주	권영덕	권혁환	서울	권정호	권영일	의성	권인섭	권미란			
구미	권영삼	권용범	안동능곡	권광택	권진업	음성	권병택	권오문			
담양	권공식	권창만	안양	권순보	권동준	제천	권기은	권균상			
대구	권오훈	권준현	영덕	권신기	권영태	진천	권정욱	권순성			
대전	권지원	권선교	영주	권오현	권용일	창원	권영민	권중수			
문경	권상인	권우덕	영천	권혁진	권영운	청송	권오경	권영호			

安東權氏 全國靑壯年會長協議會 會長 권태형